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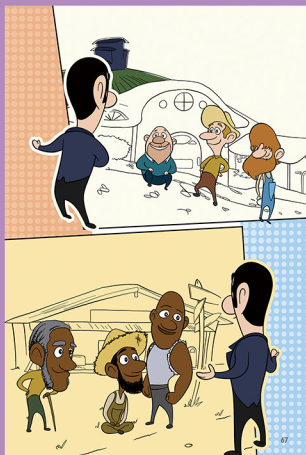
13th Story

포도밭 일꾼을 찾으세요

Vineyard Parable

포도밭 일꾼을 찾으세요

- 13th Story -



예수님 옛날에 넓은 땅에 아주 드넓은 포도원을 가진 땅 주인이 있었단다. 그때는 추수할 때라 일꾼들도 많이 필요했단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어느 날 아침, 그날 하루 동안 일할 일꾼들을 찾아 나섰단다.

포도원 주인 실례합니다. 오늘, 할 일을 아직 못 찾으셨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일꾼들 오 아주 잘됐군요. 오늘 하루 나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일꾼 1 얼마나 일하면 되나요?

포도원 주인 하루 종일이오.

일꾼 1 일당은 얼마입니까?

포도원 주인 보통들 받는 것과 똑같은 하루 일당이오.

일꾼 1 음, 다른 할 일도 없으니 뭐

일꾼 1 그래, 우리가 하겠어요.

포도원 주인 좋습니다. 저 높은 언덕에 있는 큰 포도원이 보이시오?

일꾼들 네.

포도원 주인 바로 저 곳입니다. 갈까요?

예수님 3시간이 지나고 나서, 포도원주인은 더 많은 일꾼들을 구하러 나가기로 했단다. 왜냐하면 포도원은 너무 넓은데 일꾼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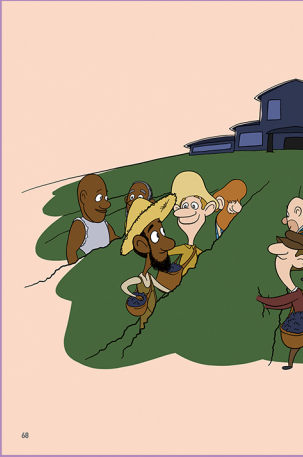
포도원 주인 잠시만요, 지금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일꾼들 네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 좋습니다. 나의 포도원으로 가서 남은 시간 일을 합시다. 일을 다 끝내면 공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꾼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또 다시 3시간이 지나자,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구하러 또 나갔단다.



포도원 주인

일꾼들

포도원 주인

예수님

포도원 주인

일꾼들

포도원 주인

일꾼들

포도원 주인

일꾼

예수님

포도원 주인

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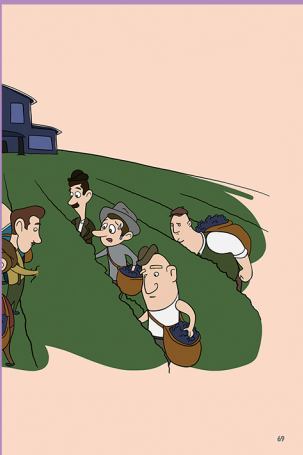
예수님

처음 온 일꾼들

하인

처음 온 일꾼들

예수님



저기요, 여러분. 혹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 아주 잘됐군요. 나의 포도원으로 갑시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일합시다. 보수는 공정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두 번 더 나가 일꾼을 구했단다. 주인이 만난 모든 일꾼들에게 주인은 그의 포도원에서 일하자고 물어보았지.

실례합니다. 하루 종일 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셨나요?

네.

그런데도 아무 일도 못 구했나요?

하루 종일토록, 아무도 저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요? 잘 되었습니다. 나의 포도원으로 가십시오. 다른 일꾼들이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곳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십시오.

보수는 공정하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꾼들은 일을 마쳤고, 그렇게 고된 하루가 끝나자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불렀단다..

일꾼들을 부르시고 일당을 주시오, 내가 제일 마지막에 고용한 일꾼들부터 가장 처음 온 일꾼들 순서로 일당을 주시오.

네, 주인님.

하인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었단다. 하지만 맨 처음 일을 하러 왔던 일꾼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굉장히 실망하고 말았단다.

이봐요! 우리가 맨 처음 왔어요. 우리부터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그저 먼저 주라고 하셨으니 먼저 준 것뿐이오.

왜 우리부터 주지 않는 거죠?

하인은 가장 마지막에 온 일꾼들부터 처음 왔던 일꾼에게까지 일당을 다 주었단다. 맨 처음 왔던 일꾼들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일당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대를 했단다. 그런데 그 하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었단다.

처음 온 일꾼들이 하인에게서 일당을 받고 나서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화가 잔뜩 났단다.



- 처음 온 일꾼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우리는 뜨거운 햇볕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던 말이오!
- 포도원 주인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 처음 온 일꾼들 아니, 이것 보세요! 1시간 일한 사람들이나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이나 똑같은 돈을 받았잖아요!
- 포도원 주인 아니아니, 기억해보세요. 난 당신에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을 고용했을 때 당신은 일당에 대해 동의했고, 전 그 약속을 지켰잖아요.
- 처음 온 일꾼들 아 네, 그랬습니다만....
- 포도원 주인 네 그럼 됐죠? 그럼 당신의 몫을 가지고 가세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은 일당을 주었어요. 그게 합당하니까요. 모든 일꾼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니 화내지 마십시오.
- 예수님 이 이야기는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란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하늘나라로 오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사랑해주신단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것이다.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